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세상살이가 많이 달라졌다. 몇십 년은 뒤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적막하다. 길거리 자동차들이 많이 줄었다. 당연히 행인들도 줄었다. 어쩐지 그것이 딴 세상에 온 듯 낯설고 서툴다. 공주와 서울을 오가는 자동차의 횡수가 줄었다. 배차 간격이 떠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표지판을 보았더니 인천공항행 버스 시간표 위에 까만 표시가 모두 붙어 있다. 공항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했다는 증거다. 그것은 또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얘이기도 하다. 가차관이 바뀌었다. 이전에 가지 있던 것들이 가지가 없어지고, 예전에 가지 없던 것들이 다시금 가치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려 대단위로 무

코로나 이후

슨 일인가를 하는 일부터 불가능해졌다. 무조건 사람 많은 데는 피하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제는 혼자서 하는 일들이 가지 있는 일이 되었다. 비대면과 비접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는 길이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혼자서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사는 연습을 해야만 하겠다. 코로나 사태를 건너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살피 학습해야만 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한데, 더욱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프라인의 삶이 위축된 데 비하여 여전히 작동하는 것은 온라인의 삶이다. 절대적인 단절과 고독과 속박의 시대에 온라인마저 막혔다면 어찌 됐을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 안도한다. 그런데 온라인의 역할이 컸다. 어쩌면 앞으로 이 온라인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지 않겠나 싶다. 내가 주로 만나거나 소통하는 사람들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중 한 분과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놀란 일이 있다. 그것은 출판사 대표인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기네 출판사에서 매일같이 지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무

슨 일이나 몰랐더니 코로나 이전 때보다 책의 매출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무슨 일로? 하여튼 좋다. 문제는 책의 종류인데 그분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생활실용서이다. 그 가운데서도 꽃 기르기, 실내 화단 꾸미기, 반려동물 돌보기와 같은 책들이 그렇게 잘 나가더라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달 실내에 갇혀서 사는 동안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종이접기나 종이 오리기 같은 것이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어울린 아날로그의 삶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방식은 디지털이 되 그 내용은 아날로그로 가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우리네 삶의 새로운 국면이요 피하기 어려운 한 방향이 아닌가 싶다. 이런 시기를 맞이하여 시 쓰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 비대면·비접촉이 강화되다 보면 인간은 더욱 고립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고독감·소외감·우울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려 주는 그 무엇일 것이다. 율통불통해지고 울렁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고 쓰다듬는 그 어떤 심리적 작용일 것이다.

그것이 그러할 때,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시라는 문학 양식 아닐까. 시는 인간의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문장 형식이다. 산문이 작정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는 글이라면, 시는 작정 없이 언뜻 떠오르는 감정을 급하게 쓰는 글이다.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문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좋은 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며, 격한 마음을 다스려 준다. 말하자면 마음의 묘약인 셈이다. 만약에 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시를 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나의 책은 변함 없이 팔렸다. 물론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활기차게 자유롭게 살았던 예제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 정작 그것이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행복의 기초다. 그렇게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시인들은 더욱 정성껏 시를 써야 하겠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노아 루크먼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인물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신념'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 더 넓게 보자면 자신도 잘 모르면서 하게 되는 사고나 행동의 습관 같은 것이다.”(김영하, '여행의 이유' 중) 시나리오를 받아 든 배우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해 한다. 배우는 작가와의 대화, 캐릭터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구체화하고 자기화한다. 활자 속 등장인물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인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는 시나리오엔 없는 등장인물 특유의 말투와 손짓, 표정과 버릇까지 창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인생이 영화라면,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만약 인생이 한편의 영화라면, 나는 '나'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인 셈이다. 그렇다면 배우가 등장인물을 분석하듯,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라는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한 데는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나'라는 캐릭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자신도 모르는 그 무엇, 즉 개별적이고 고유한 '나'와 동일해 보인다. '나'는 뭔가 있기는 있는 거 같지만 그게 뭘지 들여다 보면 정작 어디에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나'는 '사랑' '자유' '가치' 같은 개념의 일종이다. 개념은 현실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보이는 여러 현상에서 특정한 측면들을 따로 모아서 추상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그런 개념이 아무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돈은 중외조각에 불과하지만 교환 가치로서의 화폐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의 '나'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의 뒤

범벽이다. 이들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사실 '있다'는 말도 매우 애매한 표현이다. 있다는 것 역시 일종의 신기루 같은 것이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있는 것처럼 인식될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일종의 외로움 구간이랄까, 그래요. 그렇다고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면 당연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도 금방 불안해져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봐.” 노아 루크먼 식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자체 진단한 지금 자신의 '프로그램'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행복이 끼여들 틈이 없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외로운 감정이 강할 뿐이다. 굳이 '나는 외롭다'고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도 하나의 생각이다. 이 생각이 조건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젊은 시절의 나는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무형의 틀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비슷한 생각과 행동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이 들곤 했다. 극복해야 하지만 호락호락 따듯대로 되지 않는 그 무엇,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압박하곤 했다. 그녀는 다른 의미에서 젊은 시절의 내가 범했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삶이 파편하게 느껴진다면, '부정하고 싶은 나의 캐릭터'에 실증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되고 싶은 나의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지쳐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항상 '부정하고 싶은 나의 캐릭터'와 '되고 싶은 나의 캐릭터' 사이 어딘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순간, 지금의 나는 사라져 버리고 둘 중 하나가 되어 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이고 고유한 그 무엇으로 규정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다만 어떤 조건들이 지금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주제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할 뿐이다. '나'? 그런 거 없다.

기고



송지현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학과장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고안한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부족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확장 개념으로 광주 지역 농축산물, 음식 문화 자원 및 가공품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하 기관, 지역 금융기관, 프랜차이즈 전문 대학, 연구 기관 및 지역 외식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들이 협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래

업하는 모델이다. 전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광주 지역 소상공인 창업 프랜차이즈로 광주에 가맹 본부를 둔 중소기업의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이기도 하다.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글로벌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잠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광주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 단계를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기반 마련, 마케팅 강화 지원을 통한 사업 확대의 3단계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 시스템 구축, 마케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랜차이즈 전문 대학에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과 슈퍼바이저 과정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한다. 지역 금융 기관은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및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외식 및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2만 5000개의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소상공인들을 발굴한다. 지역 프랜차이즈 단체에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회원사들의 사업 동참을 장려하며, 전문 연구 기관에서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함께 연구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업을 통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우량한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왔다.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12월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및 소상공인 상생 발전'이라는 주제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

다. 이날 조선이공대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은행,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등이다. 협약서에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과 슈퍼바이저 과정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과 자본 및 상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 맛집 및 전통시장 맛집, 광주 7미 등의 광주 지역 고유한 외식 자원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통하여 맛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은 도소매 유통, 농축산물 가공, 물류, 제조, 디자인 등 연계 산업의 발전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모델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광주 지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社說

위기의 지역경제 신산업으로 극복하자

코로나19로 광주·전남 지역 산업계가 휘청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이 급감하고 산업 단지의 공장 가동률마저 급락하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39.4%와 26.1% 감소했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율은 더욱 커 광주 지역의 자동차는 50.9%, 타이어는 51.8% 급감했다. 전남도 역시 석유제품 수출이 1년 만에 42.6%나 줄었다. 광주 첨단산단, 여수산단, 광양산단 등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도 6%~11%까지 하락하면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LG화학이 여수산단의 PA(무수프탈산) 생산라인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비

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국가 간 거리를 위축시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광주·전남 주력산업 대부분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주력산업을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첨단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고,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를 내세워 주력산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바이오와 2차전지,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차체에 광주는 AI와 5G기반 ICT, 에이가전, 광융합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전남은 바이오와 드론을 비롯한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 징집 등 과거 국가폭력 진상도 규명돼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진실규명위를 꾸린 이들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녹화사업'과 '선도공작'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었다. 진실규명위는 지난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대공과장을 살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24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국가폭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군부는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했고, 이들을 일명 '프락치'로 활용하는 '녹화(綠化)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강제징집·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무사(보안사)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징집 1152명(이중 921명 녹화사업 실시), 녹화사업 1192명(강제징집 921명, 정상입대 247명, 민간인 24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진래(서울대)·정성희(연세대) 씨 등 군대에서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9명의 대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은 명백한 반인권적 국가폭력이었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무사(보안사)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이는 관련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강제징집 진상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40여 년의 세월 속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無等鼓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이어 옛 전남도청의 총탄 흔적도 찾아 복원하기로 했다. 1980년 항쟁 당시 도청 주변 여섯 그루의 은행나무 탄흔을 찾는 작업도 진행된다. 총탄 흔적의 복원은 역사적 현장의 재현이라는 공간 기념의 의미를 넘어 당시 기억과 상황을 소환하는 시간의 복원이 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화도에 가면 150년 전의 포탄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초지진'(草芝鎭)이다. 초지진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군대가 조선인 수백 명을 살육한 뒤 상륙한 곳이고, 1875년 일제의 군함 운요호가 이곳에 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 치욕의 역사 현장이다. 하지만 강화도를 찾은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유적(?)은 해안선 방어 시설인 초지진이 아니라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이다. 수령 400년의 이 소나무는 150년 전 신미양요 때 대포를 맞은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

존자라는 스토리텔링이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유이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서는 60년 전 경찰이 시민들에게 쏜 총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가 3·15의거이다. 당시 경찰은 무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집결한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을 했는데 이 학교 담장에도 무수히 총탄이 박혔다. 그러나 이 담장은 없어졌으며, 2014년에야 실제 담장이 있던 곳 바로 옆에 교육용으로 '총격 담장'이 설치됐다.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일빌딩의 탄흔은 애초 245개가 발견된 이후 추가 발견으로 개수가 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전일빌딩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전남도청과 인근 나무들에 박힌 탄흔 발굴과 함께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전남도청의 총탄 자국은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5·18의 현장이라는 장소적 역사성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5·18을 잊지 말라는 부탁이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잊지 말라는 부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